



숲도 사람도 물들겠네...

등산 애호가들이 지난 21~23일 영광군 불갑사 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 '제12회 영광 불갑사 상사화축제' 행사장을 찾아 붉은 용단을 깔은 듯한 꽃무릇 자태를 만끽하고 있다. 상사화로 알려져 있는 꽃무릇의 꽃말은 '이룰 수 없는 사랑'이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함평 '세계 축제 도시'에

세계축제협 선정... '나비축제' 7개 부문 수상

'나비축제' 고장인 함평군이 세계 축제협회(IFEA World) 평가에서 '2012년 세계 축제 도시'로 선정됐다. 함평군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린 IFEA World 총회에서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돼 공식 깃발과 인증패를 받았다. 함평군은 피너클 어워드(Pinnacle Awards) 7개 부문에서 금상 1, 은상 4, 동상 2건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4개 부문 금상을 받은 바 있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함평이 세계 축제 도시로 선정된 것은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나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덕분"이라며 "내년 나비축제는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세계적인 수준에 걸맞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안 군수는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 나비축제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축제협회는 지난 2010년부터 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 개요, 축제 경쟁력, 파급 효과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세계 축제 도시'를 선정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전국 우수산림생태 복원대회 신안 자은 해안방재림 '최우수'

전남도는 산림청과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주최한 제8회 전국 우수산림생태 복원대회에서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의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지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자은면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은 해안침식 방지와 토종식물의 서식처 복원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백개 해수욕장 일원 3.5ha에 2억5000만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해안 사구의 모래 날림 방지 시설과 방풍 울타리 조성, 자생수목인 해송과 동백 등 대규모(5000여 그루) 식재 등 태풍과 해일 등으로 인한 침식 방지와 산림생태 복원 기반시설이 효율적으로 추진됐다. 현재는 울타리 내에 모래가 높게 쌓이고 순비기나무와 해송이 건강하게 자라는 등 해안 사구에 대한 녹화(綠化)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전남도는 그동안 해송 등 상록수 위주의 해안 방재림 조성과 친환경적 사방사업에 노력한 결과 완도 금일해수욕장 해안방재림, 신안 비금 해안사구 복원사업 등 4곳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남지역 해안선 길이는 6032km로 전국에서 가장 길어 해안 방재숲 조성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백합 생산량 최대 5배 높였다

전남수산과학원 갯벌 환경개선 구조물 개발 서식률 높여

봄·가을 서해안의 으뜸 별미로 손꼽히지만 여장 면적이 크게 줄어든 백합을 대량 양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국제갯벌 연구센터는 백합 등 패류(조개류) 어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갯벌어장 환경 개선 구조물'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구조물은 갯벌에 고정하는 지주에 이른바 물을 들게 하는 '와류(渦流) 발생관'을 부착해 패류의 유생(幼生)과 종패가 서식하기 좋은 '조수 웅덩이'를 만든다. 구조물을 설치한 결과 기존 해역에 비해 백합 서식 밀도가 3~5배 이상 높아져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1973년 전복에서 백합 폐사 현상이 나타난 이후 서해안과 남해안 전 어장으로 확대됐고, 이후 어장 면적이 2001년 150ha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백합 최대 생산지인 새만금 일대가 개발되면서 국내 생산량의 90%가 사라졌다. 현재 전남에서는 영광 두우리 갯벌 어장에서 연간 20~30t을 생산하고 있다. 최연수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환경개선 구조물 설치로 영광지역에서 백합자원이 1960년대 수준으로 복원되면 경제적 가치가 연간 1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며 "연구 성과물의 발명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등 패류자원 회복과 생산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태풍 피해지역 찾아 '현장경영'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진도 방문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태풍 피해지역을 찾아 농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현장 경영' 행보에 나섰다. 박 사장은 지난 22일 진도 의신면 태풍 피해현장을 찾아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농민들을 위로했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구례군 간전면 효곡지구와 곡성군 오곡면 구성지구 독농이기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박재순 사장은 유례없는 릴레이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안타까움과 위로의 마음을 표하며 "시급히 복구를 진행한 후 시설물 보강을 위한 배수개선 사업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재해로 재난상황에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상시대비를 해 줄 것"을 현장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태풍피해 완도 전복사주기 범국민운동

郡, 내달말까지 대도시 직거래 장터 개설

완도군은 태풍 '볼라벤'의 상흔을 조속히 치유하고 전복생산 여민들이 하루빨리 삶의 터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태풍피해민 전복사주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전화위복의 뜻을 담은 전복사주기 운동은 완도군청과 유관기관·단체 및 전복주식회사, 전복유통회사, 생산자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도시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설 전복관측활동을 펼친다. 또 전국 대도시 아파트·백화점·대형 마트 등을 방문해 전복사주기 운동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군청 전락산업과에 전복사주기 범국민운동 창구(061-550-5133)를 개설해 신속하고 원활한 주문배달 체계를 구축, 피해어민들의 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목포무안신안축협 '한우타운' 개소

목포무안신안축협이 직영하는 대규모 한우타운이 문을 열었다. 목포무안신안축협은 지난 20일 무안읍 성내리에서 녹색한우타운 개장식을 하고 본격적인 영업을 들어갔다. 부지 1100여㎡에 건물면적 974㎡, 3층 규모의 한우타운은 1, 2층은 한우 전문상담, 3층은 축산물 전문매장(35평)과 세미나실 등으로 이뤄졌다. 목포무안신안축협은 산지 가축시장에서 최상급 한우를 직접 구입, 중간 유통이윤을 아예 없앤 만큼 시중가격보다 20~30%가량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25일까지 대대적인 한우암소 할인행사를 연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Advertisement for SoriQ S20 voice recorder. Features include: 국내개발 | 국내생산, NEW soriQ 소리큐 음성증폭기 S20, 국산 소리큐 음성증폭기 S20. Benefits listed: TV 시청할 때,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강의들을 때, 핸드폰 통화할 때, 대화·상담할 때. Event info: 2012 광주 국제 실버박람회 참가전시, 기간: 10. 18(목)~10. 20(토), 장소: 김대중 컨벤션 센터. Contact: 엠비온 광주 호남지사 | 010-3645-4151, 062)942-9822.

Advertisement for Hankook Tea. Features include: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Text: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각종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증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인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Product sets shown: 감동Set, 다담Set, 우전감로, 감사Set. Contact: 광주 차생원: 062)224-2902, 광주 신세계점: 062)960-1232, 광주 롯데점: 062)221-1037, 광주 현대점: 062)510-7040, 목포 차생원: 061)281-1002, 서울 차생원: 02)730-2983, 부산 차생원: 051)256-7007-8,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동 763-4 T.222-2302,3973.